

'86년 世界石油市場 전망

金 乾 洽

〈대한석유회 회 홍보실장〉

한 때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던 OPEC (石油輸出國機構)의 위력이 퇴조하면서 세계는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英國 BP社의 피터 윌터즈회장은 최근 국제석유정세가 ① 메이저가 다시 OPEC로부터 세계석유시장의 지배력을 박탈, 지난 73년 제1차 석유위기 이후 계속되어온 OPEC 우위추세를 반전시키고 있고, ② 세계경제가 석유공급의 변화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해 냄으로써 이제 석유는 70년대에 누려온 중요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으며, ③ OPEC가 이제 油價조정기능은 물론 회원국간의 결속이나 非OPEC에 대한 영향력도 상실함으로써 당분간 세계석유무대에서 퇴장하는 신세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 이제 세계는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고 갈파했다.

OPEC의 퇴조는 현실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 때 가공할만 했던 中東산유국들의 「石油武器」는 이제 그 칼날이 무디어졌다』고 개탄한 오타이바아랍에미리트石油相의 발언은 OPEC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OPEC는 지난 해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76차 정기총회에서, 세계석유시장에서 OPEC의 석유생산이 꾸준히 감소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收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석유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점유율을 고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OPEC는 5개 회원국 石油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OPEC의 공정한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기로 결정하였다.

OPEC가 25년 역사에서 가격문제를 놔두고 시장 점유율방어를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이는 중대한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까지 OPEC는 생산한도를 설정하여 생산을 자제함으로써 高油價를 유지한다는 低生産高油價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로 함에 따라 油價하락을 막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은 생산을 자제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석유정책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OPEC가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을 하기에 이른 것은 지난 70년대에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 이후 빚어진 국제석유정세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우선 첫번째 변화는 석유수요의 대폭적인 감퇴이다.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는 석유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졌고, 소비절약으로 석유소비가 감소했다. 세계석유수요는 지난 79년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83년 하반기부터 美國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에 힘입어 증가세로 反轉하기까지 해마다 5~6% 정도의 감소를 계속해왔다. 84년 상반기까지는 석유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同年하반기부터 보합세로 들어섰고, 85년에 들어서면서 석유수요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는 석유공급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다. 그동안 石油대체에너지의 공급도 증가했으나, 가장 큰 변화는 OPEC에 가입하지 않은 산유국, 즉 非OPEC산유국의 석유증산이다. 그 대표적인 例는 英國, 노르웨이의 北海석유로서 北海유전의 석유생산은 제 1차 석유위기 이전인 7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석유위기의 진행과정에서 개발이 더욱 촉진되었다.

英國과 노르웨이의 산유량은 74년에 3만5천B/D이던 것이 84년에는 3백29만B/D로 증가했다. 그 다음의 大산유국은 멕시코로 74년의 64만B/D에서 84년에는 3백1만B/D로 증가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 印度, 브라질, 오만 등 비교적 소규모 산유국들이 있는데, 이들 산유국의 산유량은 84년에 50만B/D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共產圈을 제외한 非OPEC 산유국의 산유량은 74년의 1천5백88만B/D에서 84년에는 2천4백34만B/D로 10년간 1.5배의 신장세를 보였다.

전체석유수요가 감퇴하는 가운데 非OPEC 산유국의 석유공급이 증대함으로써 OPEC제국은 2중타격을 받게 되었다. OPEC의 산유량은 74년의 3천1백5만B/D에서 84년에는 1천8백35만B/D로 떨어졌으며, 또 최근에는 OPEC 스스로 산유쿼터인 1천6백B/D 내외까지 감소했었다.

산유량 측면에서 볼 때, OPEC와 非OPEC의 力學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는 OPEC 결속의 약화와 시장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석유市況의 악화를 초래했다.

OPEC는 그동안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OPEC는 지난 82년 3월 총회에서 史上 처음으로 1천7백50만B/D의 산유쿼터를 설정했다. 이 생산카르텔은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점차 정착되었으며, 84년 10월에는 이를 다시 1천6백만B/D로 축소했다.

이 산유쿼터가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石油收入감소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O

PEC산유국 중에서는 산유쿼터를 무기한채 증산하는 나라가 잇따라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산의향은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점차 표면화되면서 산유쿼터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지난해 7월의 OPEC 총회에서도 그랬지만, 10월 총회에서는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에콰도

르, 가봉등 6개국이 산유쿼터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때 생산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였다. 사우디는 당초 자국의 산유쿼터가 타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싫어해서 OPEC의 전체산유쿼터와 사우디 이외의 기타 OPEC 산유국의 산유량의 나머지 부분으로 하여 사후적으로 결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의도적으로 이와같이 행동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원유의 공식가격을 고수하기 위해 자국의 산유쿼터를 대폭 하회하는 축소생산을 함으로써 사실상 생산조정자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지난해 6~8월중 사우디의 산유량은 2백30만~2백40만B/D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와같은 축소생산은 사우디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사우디의 산유량은 80년의 9백90만B/D에서 그후 해마다 감소, 85년에는 3백50만B/D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 油價引下……오일 戰 爭本 격화



産油量 좀 줄여요!……OPEC
 감소이다!……非OPEC

〈表-1〉世界石油 생산추이

(單位：千B/D)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北 美	13,065	12,485	11,745	11,340	11,475	11,850	11,905	11,895	11,725	11,685	11,760	11,940
中 南 美	5,325	4,985	4,460	4,505	4,715	4,965	5,530	5,895	6,295	6,560	6,475	6,705
西 歐	445	440	625	910	1,410	1,820	2,380	2,560	2,720	3,075	3,455	3,800
中 東	21,265	21,930	19,715	22,350	22,545	21,425	21,910	18,755	16,015	13,255	12,120	11,735
아 프 리 카	6,005	5,530	5,105	5,860	6,265	6,095	6,750	6,175	4,980	4,785	4,800	5,185
아 시 아 · 대 양 주	2,240	2,240	2,220	2,520	2,805	2,780	2,890	2,740	2,875	2,760	2,995	3,320
共 産 圈	10,170	11,010	11,830	12,600	13,345	14,115	14,410	14,725	14,765	14,900	15,060	15,115
世 界 全 体	58,515	58,620	55,700	60,085	62,560	63,050	65,775	62,745	59,375	57,020	56,705	57,800
O P E C	31,280	31,055	27,530	31,090	31,690	30,275	31,470	27,450	23,390	19,933	18,475	18,345
自由世界生産中 OPEC의 비중(%)	65	65	63	65	64	62	61	57	52	47	44	43

〈資料〉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各號.

그 결과 경상수지는 82년부터 적자로 反轉, 83년에 1백84억달러, 84년에 2백40억달러, 85년 2백50억달러(추정)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지(실적)도 그 영향을 받아 83년 1백2억달러, 84년 1백3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85년에도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상회한데 비해, 세출예산은 전년실적대비 10% 삭감을 단행했으나, 1백50억달러 정도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때 1천4백억달러가 넘던 사우디의 對外資産도 1천1백억달러로 감소했다. 여기에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등에 대한 채권 및 IMF 등 국제기관에 대한 용자분등 실제로 쓸 수 없는 채권을 공제할 경우 유동성있는 대외자산은 7백억달러로 감소한다는 견해도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 지난해 7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생산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자국의 산유권까지 증산할 것을 표명했다. 이어 9월부터 사우디는 美國系 메이저 4社에 대해 새로 네트백方式으로 원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네트백方式이란 석유제품가격에서 정제비와 운임 등을 공제한, 이른바 이른적인 원유가격인데 이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할인판매로 그동안 다른 산유국들이 음성적으로 실시해온 할인판매에 사우디도 참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사우

〈表-2〉OPEC의 產油量, 生産限度 및 生産능력

(單位：萬B/D)

	生 産 量					生産 限度	生産 能力 ¹⁾
	1983	1984	85.3	85.6	85.11 ¹⁾		
사 우 디	509	465	384	242	430	435	880
이 란	243	219	220	220	230	230	300
이 라 크	101	120	120	137	170	120	170
쿠 웨 이 트	108	112	109	92	90	90	230
U. = A. E.	115	116	126	112	125	95	213
카 타 르	30	40	31	30	...	28	50
베 네 수 엘 라	179	181	167	167	156	156	250
나 이 지 리 아	124	139	170	110	170	130	180
리 비 아	108	107	100	67	120	99	150
인 도 네 시 아	139	147	130	102	...	119	170
알 제 리	68	64	65	60	66	66	80
가 봉	16	15	15	15	...	14	20
에 콰 도 르	24	24	28	25	...	18	30
O P E C 計	1,760	1,749	1,630	1,408	1,750 1,800	1,600	2,723

註：1) 推定值임.

2) 最大持續可能 生産能力(maximum sustainable capacity)임.

〈資料〉PIW,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各號.

디의 할인판매와 증산정책은 다른 OPEC 회원국의 증산요구를 더욱 자극하고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의 OPEC 총회는 회원국들로부터 제기되어온 뿌리깊은 증산요구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채택한 네트백판매방식등 2개의 어려운 문제를 당초부터 안고 있었다. 결국 OPEC의 시장점유율 방어선언은 이같은 두가지 難問토의는 피한채 지금까지 OPEC의 감산에 구애받지 않고 증산을 계속 해온 非OPEC 산유국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OPEC의 이번 결정은 세계석유시장의 공급과잉현상으로 油價하락이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非OPEC 산유국들의 석유증산정책에 쐐기를 가함으로써 세계석유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총회의 결정은 非OPEC 산유국과의 價格戰爭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OPEC는 지금까지 非OPEC 산유국들에 대해 석유증산을 자제하여 OPEC의 석유시장안정화 노력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OPEC가 생산을 늘려 油價를 폭락시키는 이른바 價格戰爭을 일으켜 非OPEC 산유국들을 궁지에 몰아 넣겠다고 위협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非OPEC 산유국들은 OPEC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여 왔으며, OPEC의 위협도 위협으로만 그쳐왔었다.

그런데 OPEC가 이번 총회에서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위협이 실행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OPEC는 이번 OPEC의 非OPEC 산유국에 대한 최후통첩임을 강조하고, 非OPEC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非OPEC은 석유증산정책을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회가 非OPEC 산유국과의 가격전쟁의 시발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엄밀한 의미로 볼 때 OPEC가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 석유생산을 억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미 가격전쟁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앞으로 油價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OPEC 총회의 결정에 대해 非OPEC 산유국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OPEC의 특별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양쪽이 모두 생산을 자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앞으로 油價하락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非OPEC 가운데 OPEC의 비난의 초점이 되었던 英國은 私企業의 생산을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北海산유국인 노르웨이는 수십억달러가 투입된 생산설비를 遊休化시킬 수 없어서, 소련과 멕시코 등은 외환부족을 이유로 OPEC의 증산자제 요청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현재의 석유증산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OPEC도 최근 산유량이 1천8백만B/D 수준으로 늘어나 생산한도인 1천6백만B/D를 2백만배럴이나 초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현재의 생산수준보다 감소시킬 의사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처럼 OPEC나 非OPEC 산유국들이 생산을 자제할 가능성이 적어서 오는 2/4분기부터 石油非需期에 접어들면 油價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의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油價하락폭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석유전문가들도 배럴당 10달러에서 25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OPEC가 현재의 생산수준을 지속하고, 非OPEC 산유국들도 현재의 증산정책을 고수한다면, 오는 2/4분기에 가서 油價는 배럴당 20~23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油價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價格戰爭이 시작되면 배럴당 10달러 수준으로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油價가 다시 상승할 전망이다.

OPEC는 이제 공식가격에 의한 판매를 지양하고 非OPEC 산유국의 가격 인하에는 가격인하로 정면 대결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으며, 그 표적으로서 極東시장으로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이 지역에서 中共, 말레이시아등과 함께 시장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 그동안 歐美시장에 비해 조용하던 極東시장에도 파고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日本이 올해부터 휘발유등 석유제품의 수입을 자유화함에 따라 極東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東南아시아지역 석유시장은 급속한 수출시장세를 보이고 있는 中共과 기존의 최대공급국인 인도네시아가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말레이시아까지 생산확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고객확보를 서두르고 있어 이 지역산유국들간의 판매경쟁

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中共,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앞으로 지역내의 기존바이어 의존에서 탈피, 판로의 다변화를 추구할 것이며, 특히 美國 등 西歐에 대한 수출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러한 판매경쟁의 열기속에서 日本은 최대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中共 원유수출량의 약 절반,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원유 수출량의 약 3분의 1을 수입하고 있는 日本은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을 유도해 내기 위해 장기구매계약을 감축하는 한편, 산유국간의 경쟁을 부채질함으로써 어부지리를 노릴 것이다. 또한 東南아시아지역의 원유판매경쟁은 지금까지 비교적 독점적인 상황에서 高油價를 유지해오던 中東산유국들에게도 油價인하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東南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인 수출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中共은 美國과의 네트백거래와 보다 원거리시장 소비국들과의 카운터 트레이드계약으로 그 판로를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中共의 원유수출량은 84년에 43만4천B/D로 전년대비 30% 이상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85년에는 다시 6만5천~10만B/D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해 시장점유율이 축소되자 油價하락추세에 신축성있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원유 판매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社는 1월부터 네트백판매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中共간의 원유판매경쟁은 생산원유의 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양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모두 유허함량이 적은 중질원유로 發電所 연료로 적합하기 때문에 양국은 최대수입국인 日本에 대해 올해에 수입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원유수출량을 전년보다 20% 증가시킬 계획이다.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社는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수출촉진책을 취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면에서는 공식가격이 아니라 유사한 가격체계를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의 원유수출은 日本과 싱가포르에 각각 10만B/D, 韓國에 5만B/D, 나머지는 태평양지역의 소규모 고객들에 분산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 先物市場동향 □

美國의 先物去來 증가세 85년 石油거래는 50% 증가

美國의 先物去來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석유선물거래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FIA (美國商品先物去來協會) 조사에 따르면, 美國상품거래소의 85년도 선물거래량은 약 1억 5천 8백70만枚 (1枚는 1거래단위)로 전년대비 6% 증가했으며, 17년 연속으로 최고를 경신했다.

거래내용을 보면, 농산물·귀금속등 전통있는 국제상품은 부진한 반면, 국제나 株價指數등 금융상품이 전체거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先物 옵션(선택권 매매) 거래량도 2배나 급성장했다.

상품별로 보면, 장기국채(T-본드)와 유러달러 예금으로 대표되는 金利상품이 약 5천 5백만枚로

전년대비 34% 증가했고, S&P 5백종 주가지수 등 指數가 약 2천 2백만枚로 전년대비 21% 늘어났다. 원유를 포함한 석유제품의 선물거래는 약 7백만枚로 전년대비 5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농산물과 귀금속은 전년에 비해 대략 20% 정도 감소했다.

한편 85년의 先物옵션거래량은 약 2천만枚로 전년의 약 9백93만枚에 비해 2배나 늘어났다. 先物 옵션거래량추이를 보면 先物옵션거래가 처음 실시된 82년에 17만 7천枚, 83년 2백65만枚로서 先物 옵션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